

물을 대어 논을 만든 개척자 채구석

한 승 철(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지금 제주는 한미 FTA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힘차게 개척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제주 근·현대사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했던 선각자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정신과 의지를 오늘에 되살려보는 제주선각자 기획논단을 마련하였다.

1. 들어가며

채구석(蔡龜錫)은 천제연의 풍부한 물을 끌어 올려 논밭을 일군 개척자이다. 또한 제주 관관과 대정군수를 지낸 관리로서 제주인들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한 유학자였다. 채구석이 살았던 당시는 조선의 국운이 기울던 혼란의 시기였다. 대원군의 쇄국정책도 무너지고, 러시아,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세계의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려서 외교 조약도 맺기 시작하고, 또 일본은 이미 조선에 들어와 집어먹을 계책을 착착 꾸며가고, 급기야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500년 역사의 조선은 한일합방 조약으로 망해 버렸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채구석을 추적하는 이유는 난세 속에서도 옹골찬 기

개를 굽히지 않은 목민관이요, 제주의 지식인으로서 개척정신을 발휘한 선각자의 면면이 한 인간의 발자취로서 지금 제주의 현 모습에서도 되짚어볼 만한 삶이기 때문이다.

천제연기적비¹⁾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험벗고 배고픈 제주인들을 생각하며 논밭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어 만인을 먹여 살리려는 당찬 복안을 갖고, 바위를 뚫어 물길은 튼 개척자로서의 집념과 의지, 이재수난²⁾ 때에는 김윤식의 속음청사³⁾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정군수의 유혈충돌과 난의 확산 방지와 신부의 보호에 진력했던 옹골찬 면모와 대정유림의 영수로서 타계 후 추앙을 받았던 사실은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⁴⁾에 따르면 채구석은 철종 1년인 1850

- 1) 1957년 천제연 입구에 세워졌는데, 비 앞면에는 '통훈대부 대정군수 채구석기적비'라 새겨 있고, 뒷면에는 그의 공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2) 1901년(신축)에 반발한 민란으로, 신축민란, 신축민요라고도 하고, 천주교 측에서는 천주교난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재수난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 3) 속음청사(續陰晴史) - 한말의 정치가 김윤식(金允植 : 1835~1922)의 일기로 증손 김주룡(金周龍)이 소장했던 1887년(고종 24)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의 일기 18권 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근대사의 중요사료라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2책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방주(傍注)와 두주(頭注)를 달아 <음청사 陰晴史>에 이어 <한국사료총서>로 출판했다. 권8~12는 1896년(건양 1) 아관파천 이후 제주도와 지도(智島)에서 귀양살이할 때의 제주민란과 러일관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4) 김찬홍의 20세기 제주인명사전(2000)과 제주사 인명사전(2002), "Digital 한국학"에서 제작한 '한국의 역대인물' 등

년에 한림리에서 출생하여 1920년 7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일명 두석(斗錫). 아버지는 종관(宗寬)이며, 어머니는 홍씨(洪氏)이다. 본래는 제주성내에 거주하였으나 뒤에 중문(中文: 지금의 서귀포시 중문동)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시(詩)에도 능하였다. 1874년(고종 11년)에 진사시⁵⁾에 합격(당시 나이 24세)하였다. 1893년(고종 30년) 11월에 김응우(金膺友)의 후임으로 제주관관(나이 43세)에 도입하였다. 1894년(고종 31년) 제주관관 재임 시 제주에 흉년이 들자 봉록을 의연(義捐)하여 기민(飢民)들을 구제하였다.

채구석은 두 번이나 대정군수를 지냈다. 1895년(고종 32년) 1월에 대정군수로 처음 임용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3월 주민 강유석(姜瑜奭)과 송계홍(宋啓弘) 등이 난을 일으켜 갑오경장 후의 신제도실시에 반대하여 경무청(警務廳)을 파괴하자, 4월 전 부사 김윤

병(金潤柄)과 함께 관군을 인솔하여 이를 토벌하고 난을 진압하였다. 송계홍과 강유석의 아들 및 아우 두 사람을 검거하고, 유석은 도망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이를 병신민요(丙申民擾)⁶⁾라고 하는데 1894년(고종 2)에 시행된 갑오개혁⁷⁾ 이후 개혁의 후유증으로 발발했다.

1898년(광무 2년) 2월에는 방성칠난⁸⁾이 일어났다. 그는 이때 난민에게 붙들려 크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난이 진정된 후에는 이 난이 관내에서 일어난 책임 때문에 그해 4월 그때 목사였던 이병휘(李東輝)⁹⁾와 함께 면직되고 법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1899년(광무 3년) 8월 채구석은 죄상이 풀려 신재호(愼哉祐)의 후임으로 다시 대정군수로 부임하였다. 1900년(광무 4년) 대정군수 채구석은 성안에 있었던 별진고(別隄庫), 일명 남고(南庫)를 헐어 정당(政堂)수리에 보충하여 사용하였다.¹⁰⁾ 1901년(광무 4년)에는 이른바 이재수(李在守)¹¹⁾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는

- 5)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소과(생원시와 진사시 두 종류가 있어 생진과라고도 함)에 해당하는 시험 중 부(賦), 고시(古試), 명(銘), 장 4과목이 출제되며, 초시 복시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해 100인을 뽑아 진사의 칭호를 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 6) 병신민요 :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반대하는 의병과 소요가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896년(건양 1) 3월에는 제주에서도 강유석, 송계홍 등이 주동이 되어 수천 군중이 경무청에 쳐들어가 ‘왜양 축척’ 구호를 외치며 관아집기 등을 부수고 공문서 등을 불태워버렸다. 또 1890년 경인민란 때 관과 야합한 것으로 알려진 김지를 잡아다 죽이기도 했다.
- 7) 1894년(고종 31)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갑오개혁이 실시되어 과거의 낡은 제도가 타파되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제주도는 조선시대 초부터 이어져 온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등 3읍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23개 관찰부의 하나로 제주관찰부가 생겼으며 정의현과 대정현도 각각 군으로 승격하였다. 그 밖에도 재판소 경무청 등이 생겨나고 모든 조직이 근대조직으로 개편되었다.
- 8) 방성칠난 : 무술민요라고 하는데 1898년(광무 2년) 2월, 방성칠을 장두로 화진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란이다. 처음 화진민 등 수백 명이 목사에게 화전세 등 과중한 과세를 등소하여 시정을 약속받았으나 이를 무시해버린데 분노하여 삼읍 농민들이 무장봉기해 입성, 주성을 7일 동안이나 함락, 목사와 관리들을 성토하였다. 뒤에 장두가 일본에 귀속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송석진 등의 의해 창의군(송윤옥, 홍재진, 김남윤 등 7명이 민란을 수습 진압하기 위해 제주창의소를 마련, 조선 신촌 별의 주민 4~5천명을 움직여 민란에 대항)이 일어나 진압되었다.
- 9) 1896년(건양 1) 4월에 도입하고 1898(광무 2) 3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 10) 증보탐라지 pp307. 제주 진창(賑倉)은 관덕정 서쪽에 있었고, 동진창은 별방에, 서진창은 명월에 있었고, 대정성과 정의성안에도 각각 한 곳이 있었다. 이들은 진휼창이라고 하는데, 1668년(현종 9년)에 목사 이인이 가경세곡으로 하나의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 재난의 해에 대비하였는데, 삼읍에 나누어 두고 진휼이라 이름 붙였다.
- 11) 이재수(1877~1901) : 한말 제주 신촌민란의 주동자. 본관은 고부이며 대정을 인성리 아버지 이시준과 어머니 송씨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시 대정군의 관노였으나 갑오개혁 때 이후 노비제가 폐지되자

천주교도인 대정군(大靜郡)의 부이방(副吏房) 김옥돌(金玉玆)이 향장(鄕長) 오대현(吳大鉉)의 기처(妓妻)와 간음한 사건을 계기로 일이 확대되어 상무사원(商務社員)과 천주교도간에 충돌로 비롯되었다. 당시 대정군수였던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말려들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난이 진압되는 동안 난민 측과 제주목사 사이를 오가며 유혈충돌과 난의 확산을 막고, 또 신부의 보호 등에 진력하였으나 프랑스의 압력으로 뒤에 억류되어 조사까지 받아야 하였다. 또한 봉세관(奉稅官) 강봉헌(姜鳳憲)이 상무사의 대표 격이었던 그를 이 사건의 책임자로 조정에 무고하였기 때문에 대정군수 직에서 파면되었다. 재판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두 차례에 걸쳐 3년간의 금고생활(禁錮生活)을 하게 되었다.

채구석은 석방 후 중문에 거주하였다. 일찍이 ‘천제연 폭포수(天帝淵瀑布水)를 끌어 관개(灌溉)에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구상을 해 온 그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이제야 비로소 난국의 좁은 입지를 훌훌 털고 실학사상의 유학자로서 뭔가 민생을 살피는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논을 만들면 만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3여 년간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1906년에 천제연 토지신계 정성껏 토신제를 지내고, 사업을 착수 3년간의 공사 끝에 물길을 열어 성천봉(星川峯, 베릿내오름, 101m) 아래로 물을 대어 1908년 5만여 평의 논을 개간하는데 성공하였다. 1912년 제주금융조합을 설립 등록하면서 초대 조합장이 되었다. 조합원에 대한 농산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금융법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 허가가 되고, 7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 등기를 마쳤다. 1914년 2월 초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 총회에서 재선되었다. 1920년 만년에 대정골이나 중문 등지에서 살다가 타계하자 대대적인 유림 장례의 식으로 거행되었다.

필자가 채구석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2003년 9월이었다. 한라일보 한라산대탐사 일원으로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소재 지미봉을 탐사하면서 지미봉과 마을 사이에 위치한 갈대밭을 지날 때였다. 100년 전에 대정군수를 지낸 그가 이곳에 논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제주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척박한 제주에서 논밭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승화 시킴은 어떨까 싶다.

2. 만인(萬人)을 생각한 선각자

-피와 땀으로 옥토를 만들다-

화산폭발로 이뤄진 제주섬은 전역이 용암으로 덮여있다. 표층을 이룬 용암으로 인해 땅은 매우 거칠어 옛날에는 살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다. 더구나 모든 물은 지하로 숨어 버려 농사에 의존했던 옛 조상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큰비가 내려도 냇창(河川)에 격류가수 시간 흐르다 말라버린다. 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논을 일구지 못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밭농사조차 온통 돌투성으로 비옥한 밭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 집을 세우고 길을 뚫고 밭을 일구는 일이 돌과 싸우는 일이었다.

제주가 화산회토로 뒤덮인 섬이라는 점은 제

관아의 급사이면서 향장 오대현의 하예가 되었다. 그리고 신축민란 때 주동자가 되어 제주성에 들어가 교인들을 죽였으며,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주의 농업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탐라지, 제주삼읍지등 이전에 출간된 고지(古誌)의 물 산조를 보면 벼 품종으로는 선(稔稻, 메벼, 제주어 산뉘)가 있을 뿐 수벼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주도세요람(1939년)에 따르면 1938년 당시 제주도의 경지면적은 총 9만1,706정보¹²⁾이고, 이 가운데 907정보가 논이었다. 제주도 경지면적의 1%에 불과했다. 1993년 제주도 발행 제주도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 57.4%가 논인데 반해 제주도의 논은 총 경지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기록됐다. 그래서 쌀밥을 명절, 제사 때나 조금 맛보는 것 외에는 평상시는 생각조차 못했다.

채구석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척박한 화산섬에 논을 만들어 쌀을 짓게 한 장본인이었다. 24세에 진시과에 합격하고 제주판관, 대정군수를 두 번 지내면서 만인이 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황무지에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일¹³⁾이었다. 구좌읍 종달리 수답공사와 중문 천제연 수답공사가 바로 채구석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중 피와 땀을 기울인 끝에 중문 수답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내 관개수로는 척박한 농업환경을 극복한 대표적인 농업용수시설의 상징이다. 적어도 수리 공사를 통하여 관개사업을 벌여 논농사를 지은

것은 제주도의 역사기록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가. 종달 제1수답¹⁴⁾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 경계의 광활한 갯벌을 이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1890년 경에 당시 제주판관이었던 채구석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금봉사 입구에서 ‘신속곶’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언제(堰堤)를 쌓아 논을 만들었으나 지반이 견고하지 못해 해수가 땅 밑으로 솟아나면서 실패하였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종달리 주민들은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¹⁵⁾을 거론할 때 대정사람 채구석을 기억해낸다. 지금은 습지대로 변한 이 지역의 면적은 22만평에 달하고, 지미봉을 배경으로 하도양어장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미래지향적인 생태테마관광지나 환경농업지구로 개발해봄 직하다고 하겠다. 한때 환경농업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북제주군은 1999년 5월에 이 지역 논밭지구 22만평을 대단위 양식장, 환경 농업 시범 단지, 화훼 특작단지 등을 설치하여 생산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종달리에서는 마을 동쪽 간석지를 1957년부터 근 12년 동안 대대적인 간척 공사를 벌여 수답을 만들어 쌀을 생산하였다.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 주민이 거의 없는데, 이 곳은 원래 염전으로 이용되던 간석지(干澗

12) 1정보는 3000평, 1ha의 면적

13) 제주일보 1978년 10월 12일자 홍순만의 碑(28) 개척기념비(산을 뚫고 바위 깎아 논밭 일군 개척정신) : 제주도민의 선조를 가운데 바위를 뚫고 물을 끌어다 논을 만든 이야기들이 있다. 안덕 황개천 바위를 뚫고 화순에 물을 댄 김광종의 이야기, 천제연 독을 뚫고 중문에 물을 댄 채구석의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14)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의 마을’ 종달리 편

15) 이 지역은 이후 전라도 부자 송구래가 매입하고 언제의 서쪽 암반을 뚫어 해수의 유출입 시설을 하였으며, 이중 공사를 벌여 바다 쪽은 양어장, 일주도로쪽은 수답으로 완성하였다. 다시 송구래는 함덕사람 김경찬 계담 형제에 매각하고 이어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되는 등 주인이 바뀌면서 수리 시설 및 관리가 소홀해져 논밭이 차츰 습지대로 변해 현재는 갈대가 무성하다.



〈그림 1〉 채구석이 수답으로 만들려고 독을 쌓았던 종달리 신숙곶 일대의 갈대밭.

地)¹⁶⁾이었다.

나. 천제연 웃골 수답¹⁷⁾

채구석은 이재수난 후 대정군수 파직과 동시에 3여 년간의 구금생활에서 풀려난 뒤 중문에 살게 되면서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논을 만들고자 하였다. 수답을 만들면 만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에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1907년(정미년) 천제연 토지신개 정성껏 토신체를 지내고 사업을 착수, 2년간의 공사 끝

에 1908년 천제연 웃골 수답을 완성하였다.

장작불로 바위를 부수고 뚫어 2km나 되는 물골을 베릿내 오름(해발 101m) 앞까지 만들어 5만여 평의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었다.¹⁸⁾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서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원로 고재룡 옹이 소장한 관련 문서¹⁹⁾를 보면, 첫 공사 구간은 천제연 1단 폭포(‘웃소’)에서 베릿내오름골 앞을 돌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밀레니엄관 신축 부지 일대까지 1,889m이었다. 일명 ‘웃골수로’로 불리는 1차 공사로서 이 일대 5만여 평의 땅이 논밭으로 바뀌게 되었다.

1차 공사는 천제연 1단폭포 연못의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암반지대인 천제연에 물길을 뚫는 것은 대단한 난공사였다. 채 군수는 천제연 150m가량의 암반지대를 뚫기 위해 소주원역을 붓고 장작불로 폭파했다고 이 공사에 참여한 이재소 옹(1984년 작고, 당시 97세)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 가장 난공사 지역인 이곳은 천제연 1단 폭포 내 창구목과 화폭목에 해당한다.

16) 조선 중엽 1573년 강여(姜侶) 목사가 종달리 해안 모래판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종달리 유지를 육지부로 파견해서 제염술을 전수하게 하여 제염을 장려한 제주지역 제염의 효시의 그 장소이다.

17) 당시 유일한 쌀 생산지였다. 그 옥토 위에 지금은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옥토의 흔적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18) 중문 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 중문마을회, pp152~154. 마을사람들은 천제연의 품부한 물을 이용하려고 무진히도 애를 썼다. 천제연 양쪽 가에 3개의 물골이 있는데 동쪽에 웃골과 알골, 서쪽에 셋골이다. 셋골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지형이 험하고 군데군데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을 1893년에 색달리 김천총(김을생의 부친)씨가 착공은 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대정군수를 지낸 송경연이 인계를 받아 완성시켜 개여물개(지금의 마린파크 일대) 물을 대어 논을 만들었다. 약 5년간의 역투 끝에 1887년(정유)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19) 2005년 5월 제주일보에 문서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이 있다. 1912년 1월 작성된 채구석, 이태옥, 이재하 3인명의로의 계약서에 보면, 공사비는 당시 돈 302원이고, 채 군수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불한 공사비 외에 나머지 공사비는 이태옥과 이재하가 준공할 때까지 담당기로 약속했다고 쓰여 있다. 수로건설 후 주민들은 ‘성천담회(星川谿會)’를 조직해 물 관리를 맡았다. 물 관리자로 ‘수감(水監)’을 두었고, 그에게 수고비로 1년에 버 할말지기를 주었다고 한다. 1917년 7월 계약서에 보면, 물관리가 엄격히 관리됐음을 알려준다. 너비기경 물을 끌어 들여 작답한 것이 여러 해가 돼 물 부족에 대한 한탄이 없지만 지금 이르러 물이 전보다 감소해 원한이 없게 고르게 나눔이 타당하니 이에 답주들이 모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인 즉, 물은 고르게 분배해 농사를 짓게 한다. 물대는 일은 돌아가면서 한다. 물 관리는 ‘수감’에 의탁해 하되 논주인은 말지 못한다, 계약을 어기면 벌금 1원을 징수해 공동기금으로 쓰고 답주와 수감이 법을 살피 징계토록 한다는 것이다.

향토사학가 홍순만²⁰⁾ 글 제주신문(1978년 10월 19일자) 연재물 碑<30>에는 채구석은 안덕 화순 황개천(창고내 하류) 관개사업을 이룩한 김광중²¹⁾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상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위업을 남긴 개척자였다고 나타나 있다. 박용후²²⁾가 지은 제주도지와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를 보면 채구석은 대정군수에 파직되어 전직 관료신분으로 천제연 개답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직도 아닌 한낱 야인의 몸으로 이 사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전직 군수의 예우는 받았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공사를 성취하기까지에는 이만저만한 고충이 따랐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가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는 1899년(광무 3년) 서울에 잠깐 머무는 동안 중문천 수전(水田) 개발 계획을 구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 채구석의 새로운 사고와 도전정신은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천제연 수답 2차 공사는 천제연 2단폭포인 '알소'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옛 너베기 지경)까지 구간인데, 이 지역에선 '알골수로'로 통한다. 고재룡 옹이 소장한 1917년 1월 계약서를 보면 이 해 윤2월 착수한다고 기록돼 있다. 계약인은 1차 수로공사의 수주(水主)인 채구석 등 3인으로 돼 있고, 내용은 이

렇다. '광백이(너베기) 지경의 논공사는 목적한 대로 이룬 바, 각 3인이 공동 분담해 하되 공사비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선다.' 는 내용이다. 2차 공사²³⁾가 완료된 시점은 채구석이 죽은 후인 1923년(계해)로 2만여 평의 논밭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척한 수답에서 쌀이 생산되면서 당시 중문은 이웃 강정마을과 더불어 제주도 최대의 벼 생산지로 발전하였다. 채구석 군수는 중문마을에 그치지 않고, 강정 마을에까지 손을 부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이처럼 물을 당겨 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제주도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했고, 제주도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전기를 그어놓은 제주농업사의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몇 년 동안 거듭된 실패와 어려운 난관을 좌절하지 않고 관개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들은 제주도민의 불굴의 강인한 정신력과 개척정신을 실증시킨 사건이자 후세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중문 천제연 입구 한 켠에 세워진 '채구석 개척기념비'²⁵⁾도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죽은 지 30년 남짓 지난 1957년 8월에 대정유림들이 대정군수 채구석을 기리어 세웠는데 비 앞면에는 '通訓大夫 대정군수 채구석 기적비'라 새겨있다. 비 뒷면에는 그의 공적

20) 전 제주문화원장.

21) 김광중은 한경면 저지리 출신으로 1832년(순조 32년)3월부터 1841년(헌종 7년) 9월까지 10여 년간 안덕 황개천 바위를 뚫고 물을 끌어당겨 논밭 1만여 평을 일궈냈다.

22) 대정사람, 향토사학가.

23) 이 때에는 호근리 이재하씨와 대포리 이태옥씨가 협력한 공이 크다고 한다. 당시 성인의 품삯은 일당 3돈(엽전 30개)이었다.

24) 홍순만 글, 물의 개척사.

25) 정재 고병오의 元大靜郡誌(대정역사문화연구회 발간)내 『정재 고병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향토사학과 김찬흠씨의 글에 기념비를 세운 과정이 소상히 나타나 있다. 1957년 중문리의 이기휴가 유림과 중문면민을 일으켜 이재유, 이자화, 고태휴 등과 힘을 모아 기념비 건립을 서둘렀다. 사립에서는 비문만은 양제 권순명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정재는 이호진 등과 함께 바다를 건너 잘 알고 지냈던 동학 동문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병오·박용후 공편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를 보면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대정현의 천제연 폭포는 중문천이 흘러 영소를 이루었다. 마치 우렛소리처럼 들리고 비가 내리는 듯하며 용과 교룡이 그 속에 숨어 산다. 앞뒤

자세히 살펴보고 교묘하게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고 한줄기 물길을 열어 놓았다. 이 물길을 성천봉 아래까지 2~3리 끌어당겨 5만여 평의 땅을 수전으로 개벽하였다. 농부나 소작인은 물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은 지리를 잘 이용한 이 특과 도량을 보고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고



〈그림 2〉 1958년에 천제연 동쪽 언덕에 세워진 채구석기적비 앞면(왼쪽)과 뒷면

를 두른 기암노수는 완연히 금병활화와 같아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탐승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치와 또 맑고 깊은 물을 보아 탐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물을 당겨서 민생에 이롭게 한 사람은 없었다. 채구석은 이곳을 한번 보고난 후 이곳을 완상하기에만 그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것을 灌溉에 이용할 수 있다면 만민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방도가 없겠는가를 궁리했다. 비록 못이 있는 곳이 낭떠러지가 심하여 물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했지만 지세를

하건대 탐라는 옛날에는 수전이 없었는데 채 후가 이제 비로소 발명하였으니 비록 개척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작년 겨울 중문면민 父老들이 채 후를 위하여 비를 세우고 공적으로 적어 길이 추모하도록 하고자 鄉章甫이기휴가 나에게 글을 청하여 왔다. (중략)

수창자는 이재유, 이자화, 고태휴이요, 훈공한 자는 김성해, 김영식, 김태수요, 와서 謁文한 자는 고병오, 이호진, 원기영, 이남로이다.

1957년 정유 8월 초순 청석산인 권순명 적음

경제살리기

채구석기적비는 중문리 유지를 포함한 대정향교 관내의 유림들이 남긴 멋진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碑를 세운 것은 권순명이 글을 지은 이듬해인 1958년 봄으로 되어 있으며 창조자와 畜主일동이 공동으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개척한 농경지는 중문관광단지 개발 용지로 수용돼 1971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주민들은 이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건설한 수로부지와 시공물에 대한 보상을 농림부, 자치단체, 의회, 관광공사 등 관계요로에 14회 요청했으나, 관개수로가 구거(溝渠. 폭이 좁은 작은 개울)로 기록돼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 군수의 공적을 기리는 또 다른 개척비가 2003년 2월 26일 천제연 3단 폭포에 세워져 있다. 성천담관개유적비(星川畚灌漑遺跡碑)라고 쓰여 있는 비석의 뒷면에는 채 군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함은 물론 도수로(導水路)

공사의 과학적인 지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음미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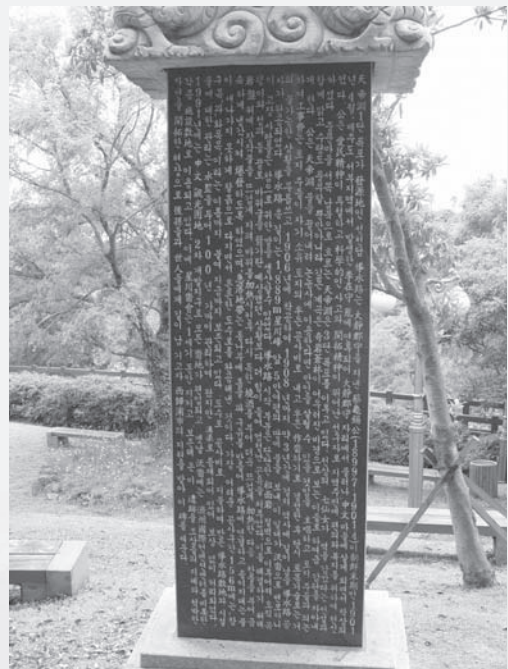
비문에 따르면 공은 애민정신이 투철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개척정신이 뛰어난 선구자로, 당시 토목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1906년부터 1908년까지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역사에 길이 남을 천제연 도수로 공사로 완공, 황무지를 옥답으로 바꿔 주민들이 참으로 고귀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수로 시작부분이 단단한 조면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바위굴을 뚫어야 했다. 당시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장비는 오직 곡괭이와 정, 돌끌 정도였는데, 고심 끝에 장작불과 물을 사용, 온도차를 이용한 과학적인 공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암반위에 장작불을 뜨겁게 지펴 바위를 가열시킨 뒤 다시 독한 소주를 부어 더욱 뜨겁게 가열한 다음 찬물을 부어 급속하게 냉각시켜 폭발하도록 하였다. 암석이 급격한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균열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림 3〉 성천담관개유적비 앞면(왼쪽)과 뒷면



도수로의 경우도 급락지대(절벽 등)는 통나무에 흠을 파서 구유를 만들어 도수로에 연결하였고, 송이지대(화산회토라서 물이 쉽게 빠짐)는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찰흙으로 다지면서 튼튼한 도수로 완공하였다.

이에 성천답회(星川畚會)는 1세기동안 지키고 보존해온 유적을 조상의 지혜와 착박한 자연을 개척한 현장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이 비를 세운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수답 유적들은 1991년에는 중문관광단지 2차 개발지구로 편입되었으며, 옛날 옥답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제주평화연구원 등 각종 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1차 관개수로와 2차 관개수로가 지금도 주인 없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개척된 옥답은 계단식 밭을 연상하듯 포개져 천제연 관개수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논농사에 부적합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등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농업환경을 전해주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 제156호로 등록 예고한 바 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낸 제주인

의 강한 의지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천제연 암벽 사이로 뚫어진 물길을 견노라면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수난에도 등장하는 그는 당시 관리이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일찍 바라보며 이를 실천에 옮겼던 선각자였다.

3. 옹골찬 기개 지닌 목민관

-난세 속 도민의 평안을 도모하다-

24세에 진시과에 합격한 뒤 제주관관과 두 번의 대정군수를 지낸 채구석은 도민의 평안을 도모하는 임무에 충실하였고, 국운이 쇠약해지는 난세 속에서 제주인의 기개를 발휘한 목민관이었다.

1901년 5월에 신축민란, 이른바 이재수(李在守)의 난²⁶⁾, 일명 천주교²⁷⁾ 난이 일어났는데, 이는 천주교도인 대정군(大靜郡)의 부이방(副吏房) 김옥돌(金玉玔)이 향장(鄕長) 오대현(吳大鉉)의 기처(妓妻)와 간음한 사건을 계기로 일이 확대되어 상무사원(商務社員)과 천주교도간의 충돌로 비롯되었다.

상무사²⁸⁾는 그 성격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26) 신축민요 : 1901년(광무 5년) 5월에 일어난 천주교란. 이재수가 장두로 지휘하여 이재수란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천주교들의 월권과 행패, 그리고 과중한 과세의 폐단에 분격한 민중들이 봉기하여 제주성에 입성, 천주교들을 색출 차단하였다. 천주교 측으로 볼 때는 신도 3백여 명이 희생된 큰 교난이었다.(역주 증보 탐라지, pp508). 특히 천주교 측의 연구보고서에는 교난으로 희생된 사람이 교우 700여명, 도민 200여명 총 900여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동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등은 1901년 10월 9일 교수형이 집행되어 서울 청파동 묘지에 묻혔다.

27) 1858년 제주도에 가톨릭이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1899년 페이네(한국명: 裴嘉祿)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가 파견되면서 본격적인 전교가 이루어졌다. 그 뒤 1900년 라쿨(한국명: 具瑪瑟), 무세(한국명: 文濟濤) 신부가 선교사로 파견됐으며, 2년 뒤인 1901년에는 교우 242명, 예비교우 700여명으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28) 상무사는 1899년(光武 3년)에 발족된 전국 보부상(保負商)단체로서 그 기원은 보상과 부상의 행상조합 조직이었다. 1883년 해상공국이 설치되면서 통합되고, 1897년 황국중앙총상회에 속했다고 다시 황국협회(皇國協會)에 이속되었다. 이후 1899년에 상무사로 발족하였는데, 상업을 목적으로 한 이익공동체적인 상인단체로서 혈연 공동체적이며 정신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1901년에 대정지역에 조직된 상무사는 지방관과 지방유지로 구성되었다.

1901년 4월에 채구석, 오대현²⁹⁾, 강우백³⁰⁾ 등 대정군민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겪어온 일본어민의 어장침투, 경래관(京來官)들의 탐학(貪虐), 봉세관³¹⁾의 남세(濫稅)와 일부 천주교도의 작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설립한 것인데, 외세를 배경으로 작폐를 일삼는 일부 천주교도들과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상무사의 주도자이며 당시 대정군수였던 그는 이재수³²⁾난이 진압되는 동안 관민 측과 목사 사이를 오가며 유혈충돌과 난의 확산을 막고, 또 신부의 보호 등에 진력하였으나 봉세관(捧稅官) 강봉헌(姜鳳憲)이 상무사의 대표

격이었던 그를 이 사건의 책임자로 조정에 무고하였기 때문에 대정군수 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어 프랑스의 압력으로 뒤에 억류되어 조사까지 받아야 하였다.

조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군수 직에서 파면되고 그 뒤 3년간의 금고생활(禁錮生活)을 하게 되었다.

1903년(광무 7년) 11월 배상금 문제³³⁾가 해결된 후에야 석방되었다. 이때 아들 채수응(蔡洙應)과 도민 고승관(高昇觀) 등이 중앙에 석방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주요하였다.

당시 제주군수는 김창수³⁴⁾이었다. 김 군수는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상규(李庠圭)³⁵⁾가 1901

29) 오대현은 신축민란의 주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정상무사 부회장이고, 일명 오을길이며, 본관은 군위, 출생지는 중문면 예래리이다. 대정유림의 좌수로서 채구석 및 송희수 등과 함께 상무사를 결성할 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01년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폐가 심하고, 또 봉세관 강봉헌에 의한 세폐가 심해지자 강우백 및 이재수 등과 함께 상무사회원들은 반서교 운동을 전개하고 제주성을 공략하였다. 제1차 봉기 때 오대현은 서진장두를, 2차 봉기 시는 동진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찰리사 황기연을 제주로 파견 진압하고 민란의 주도자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등 3명과 봉세관 강봉헌, 그리고 행정 책임자 채구석, 또 민란 관련자 4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해상으로 인천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고, 오대현은 교수형에 처해졌다.〈역주 증보탐라지 p172, 주 82〉

30) 강우백(1852~1901)은 대정사람. 조선조 고종 때의 상무사 회원 신축민란의 주동자. 1898년 방성칠란에 함께 참여했고, 이듬해 천주교 예비 신자로 성당을 드나들었으나 나중에 신앙생활을 단절하고 오히려 반천주교 운동에 앞장섰다. 천주교도와 봉세관의 작폐가 심하자, 상무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월평리 이민을 이끌고 대정군수에 호소하는 등 농민운동을 지도하였고, 이재수난 때 1차 동진장두, 2차 동진장으로 민군을 지휘하였다.

31) 광무 5년(1901년) 4월 12일에 홍서순이 탁지부 훈령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징세 독쇄관으로 와 있는 강봉헌을 봉세관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어사의 마패를 주어 삼읍의 공도와 생산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봉세하도록 하였다. 강봉헌은 자신도 학렴하는데 급급하였지만 그는 교인 불량배를 시켜서 갑오년 이후 없어졌던 민포를 추징하고,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염분세, 심지어는 잡초세까지 징세하였다. 봉세관과 불량 교인들이 한 짝이 되어서 돈을 토색하게 되니 백성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32) 이재수(1877~1901) : 한말 제주 신축민란의 주동자. 본관은 고부이며 대정읍 인성리 아버지 이시준과 어머니 송씨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시 대정군의 관노였으나 갑오개혁 때 이후 노비제가 폐지되자 관아의 급사이면서 향장 오대현의 하제가 되었다. 그리고 신축민란 때 주동자가 되어 제주성에 들어가 교인들을 죽였으며,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33) 법국 공사는 두 신부가 입은 손해, 훼손된 교당 수리비, 불에 타거나 실물된 여러 개 물품 외에도 수백 교인을 먹인 식량, 쌀감, 목포 왕복에 쓰인 선비, 목포에 피난 간 교인들이 쓴 비용, 기타 잡비 등 난리 중에 쓰인 돈이란 돈은 다 들어가고, 그리고 구 신부의 죽은 하인의 출금이 1천원 등 백미 516석에 맞먹는 5,160원을 배상하고 교인 영장지를 정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 난관을 타개해 준 것은 제주도민들이었다. 1903년(광무 7년) 설달, 제주 삼읍 민인 4만여 명은 흔쾌히 채구석과 공범임을 자처하고 늘어난 이자 포함 6,305원을 각자 십시일반으로 모아 탁지부에 냈다. 영장지 문제도, 때를 맞추어 도민 한 사람이 자기 소유인 황사평 한 귀동이 땅을 자진해서 내놓자 쉽사리 풀렸다. 지금의 천주교인 공동묘지다.

34) 1901년(광무 5) 정월에 도임하고 1901년 4월에 목사서리를 겸임하여 당시 천주교난을 백성으로 알아듣게 타일러 해산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난민이 듣지 아니하므로 경체되어 백성들이 심히 애석하게 여겼다. 구미술, 문제만 두 프랑스 신부와 함세하여 제주성을 사수하기로 하고 군기고의 문을 열어 수비를 강

년 1월 면직되자 제주군수와 목사 일까지 함께 겸임하였다. 동년 음력 3월 유배인인 이범주의 구속사건으로 구미슬³⁵⁾ 신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동년 음력 4월 14일에 목사 겸 판사 이재호가 주사 최창순과 함께 프랑스 함대의 함정을 타고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들어와 목사와 제주재판소의 판사를 맡아 이듬해 1902년(임인년) 6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이재수란을 보는 시각에 따라 채구석의 역할과 활약이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대적 배경과 당시 제주사회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1899년 프랑스 신부 페이네, 김원영, 라쿠르, 못세 신부가 차례로 들어와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재수난이 일어난 해에는 영세자가 242명, 예비자가 600~700명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 채어인(採漁人)들이 대거 진출하고 이들은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자행, 특히 아라카와(荒川留重郎) 같은 사람은 어장 독점을 위해 프랑스 선교사들을 도외시하여 착취하고 있었다. 목사 이상규는 남세를 자행 축재하고, 정부에서 파견되는 봉세관 강봉헌은 업청난 잡세를 징수하였다. 이러한 일에 천주교인들이 채용되면서 불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 이곳저곳에서 반천주교운

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연이어 발발했다. 반천주교 활동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오신락이 죽자, 이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가 문제되었다. 대정상무사에서 오신락의 죽음을 조사하고자 검시관 대정군수 채구석, 이재수 등이 시체를 확인하였고, 대정상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림들은 반서교, 반외세를 더욱 표방하게 되었다.³⁷⁾ 이후 대정에서 오대현의 기처를 간음한 사건이 발생, 상부사원과 천주교도 간의 충돌로 비화되어 결국 이재수 등이 난을 일으켜 제주성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당시 제주사회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쪽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냐에 따라 이재수란을 평가하는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 향토사학가들의 시각과 천주교 측의 시각이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교도들의 희생을 강조하여 신축교란(辛丑教難), 성교난(聖教亂)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난의 원인이 제주도내 토착세력들이 그들의 안위를 위해 교세가 확장하는 천주교에 위협을 느껴 대규모 박해를 일으

화했는데 제주성이 포위되자, 구미슬 신부에게 수성하도록 지도하고 별도로 피신해버리기도 하였다. 1902년 3월 재차 제주군수로 임명되었다.

35) 제주목사 이상규는 1899년(광무 3년) 10월에 도임하여, 총물당을 중수하였으나, 1년 3개월의 재임기간 중 봉세관 강봉헌이 내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데 지나치게 혹독하니 도민이 그를 원망하였다. 그는 도임하자마자 이방 홍우순을 불러 관방을 소홀히 냉대하였다 하며 큰 곤장 15대를 치고 투옥했다. 다른 이속들도 같은 수법으로 4~5명 수감당하니 부임한 지 20여 일 동안에 장전을 6만 냥이나 거두어 들였다. 이와 같은 횡포는 전례가 없는 일로 민심이 흉흉하였다. 성문마다에 방이 나붙어 목사와 5인 간의 죄를 묻겠다 하였으므로 이상규 목사는 두려워하여 부호를 적간하여 수정하는 것을 중지하라 하였다. 돈 1만량을 거둔 죄로 1901년 1월 면직되었다. 윤 2월 8일에 제주를 떠나면서 그동안 끌어모은 장전 수만 냥을 배로 실어가기 위하여 산지포구에 가지고 갔다가 안령사(안행어사) 이도재에게 발각되어 교졸들과 아수라장이 되었다.

36) 일제강점기 때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 본명은 마르셀 라쿠르. 1899년(광무3)에 내도하여 제주성내와 서귀포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포교하였으며, 신축민란을 겪었다. 신성여학원과 신성유치원을 설립하였다.

37)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 pp418.

켰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치가 부패한 상황에서 천주교가 제주에서 크게 발전하여 도민들의 온갖 미신행위를 없애며, 복음을 전하던 중 일부 불량교도의 문제를 빌미삼아 대정 상무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천주교도 전체를 박해한 것으로 그 큰 틀을 잡고 있다. 이외 천주교의 포교에 따라 도민들이 떼 지어 교회당을 찾으면서 무당들이 그들을 따르던 도민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천주교를 비난한 것이 교난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향토사학가들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도의 월권과 행패, 그리고 과중한 과세의 폐단에 분격한 민중들이 봉기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신부의 세력과 교회권력을 이용하여, 혹은 봉세관의 주구가 되어 갖은 횡포를 부린 불량한 교도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주동자인 이재수 등은 정의에 입각하여 도민의 민생을 위해 싸운 것으로 귀결된다.

김석익³⁸⁾은 이재수난을 평하여 말하기를 “살피건대 사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 고금을 통하여 한계가 있으리요 만, 누가 창칼을 잡고 시석을 무릅쓰며 이 사람처럼 쾌히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중략) 이 멀리 떨어진 작은 섬으로 하여금 또한 죽히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하니, 생각건대 맹자가 이른바 성인의 무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다.³⁹⁾

일부는 채구석을 신축민란의 실제 배후 실력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재수난 발생과 연관된 교인들과 상무사와의 충돌, 그리고 상무

사 사장이 바로 채구석이라는데 주목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상무사의 설립이 신축민란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더라도 상무사의 본래 설립 취지는 따로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란의 배후실력자로 못 박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볼 수 있다.

다시 주목하지만 그가 지방목민관으로 활약했던 시기는 국운이 기울던 구한말이었다. 제주는 당시 기울던 국운을 반영해서인지 크고 작은 민요가 발생하여 사회기강이 문란해지는 시기였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는 목민관으로서 여러 차례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야 했고, 그런 와중에도 제주땅의 안녕과 도민들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굽히지 않는 기개를 발휘한 토박이 관리의 모습을 남겼다. 결코 글 깨나 읽는 나약한 유학자가 아니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노의 깃발을 높이 치켜 든 황사평의 적진을 찾아가 담판을 벌이며 효유에 나선 사실 등이 그 증거가 아닐까 싶다.

4. 제주인물 채구석 연구 의미

-수선화 같은 제주인-

제주의 목민관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백성을 보살피기를 부모와 같이 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인정받는 목민관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갈취하기를 밥먹듯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목민관도 부지기수다. 조선후기 제주에는 크고 작은 민란이 잇따라 발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민란의

38) 김석익(1885~1956) : 일제강점기의 한학자, 향토사학자. 1890년대 말 제주에 유배 온 이용호(李容鎬)와 제주의 마지막 유학자 안병택(安秉宅)에게서 한학을 배웠고 저서 '탐라기년', '탐라기년 속편' 등을 통해 오늘날 제주사의 토대를 쌓았다. 또한 식민지 치하에서도 민족혼을 심기 위해 후학양성에 힘써 제주 향일의병장 고사훈을 비롯해 강창보, 한상호, 김정로, 고경흠 등을 문하에서 키웠다.

39) 증보탐라지, 2006, pp508.

대부분이 백성의 삶을 보살피지 않고, 무거운 세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는 지방수령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목민관이라 함은 지방행정의 수장들로서 관찰사, 목사, 부사 현감, 현령, 병사, 도사 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에 적합한 인물이 무엇인지를 목민심서라는 명저에 남겼다. 이들 지방행정의 수장인 목민관은 임금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각별한 도덕심, 청렴성, 봉사성이 요구된다.

채구석은 어떠한 목민관이었을까. 채구석은 당당히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한 국가시험인 진사시에 합격하고, 지방 관리를 수행하면서도민의 평안을 도모하였으며, 이중 제주관관, 두 번의 대정군수 직을 8년여 간 수행하였다.

제주에서는 중앙관리(경래관)가 목사 일을 맡게 돼 있어 제주출신인 채구석은 제주목사를 보좌하며 제주군⁴⁰⁾의 행정을 도맡아 하는 제주관관을 1893년부터 1896년까지 역임하였고, 이어 1896~1901년 사이 대정군수를 두 번이나 역임하여 사실상 지방출신자로서는 최고의 직을 역임한 셈이다. 당시 이상규 등 몇몇 제주목사들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되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다, 적발되어 중도에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채구석은 이와 비슷한 사안이 적발되거나 문제의 시비가 된 바 없다.

당시에 나약하고 글깨나 읽는 한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더욱이 태평성시 같았다면 부족함 없이 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았으련만 지방관리직을 맡을 당시에 난세를 반영하듯 민요가 잇따라 곤경을 치렀던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구석은 실학사상을 전수받은 유학자로서 만인이 잘사는 공리를 하였던 선각자였다. 그는 천제연 물을 하류로 끌어들이어 논밭을 일군 개척자였다. 조선 후기 실

학정신이 정착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는 결코 나약한 선비에 머물지 않았다. 당시 만해도 약자를 강탈하고, 가림주구의 원수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지방관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오히려 만인을 생각하였다. 논농사를 하게 되면 만인이 쌀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천제연 바위를 뚫고, 물길을 내어 새로운 농법을 시도한 것이야말로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수범사례가 아닐 수 없고, 제주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시도였다. 천제연에 남아 있는 비에 채구석기적비라 새겨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업적은 기적에 가까운 놀랄만한 일이었으며, 제주산업 발달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제주땅에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그리 많이 있었을까. 생각건대 당시 5만평의 논밭을 일궈 귀한 흰쌀을 생산해낸 일이야말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며 당시로서는 성장동력이었던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다하겠다.

만년에 대정골이나 중문 등지에서 살다 1920년 초 타계하자 대대적인 유림 장례의식으로 거행되었다.

채 군수의 5남인 채몽인(蔡夢印)은 애경유지 공업주식회사를 창업한 실업인으로서 이미 작고하였다. 이를 승계한 부인 장영신(張英信)은 우리나라의 최고 여성 경영자로 애경그룹을 일으켜 세웠다. 채구석의 손자 채형석(蔡亨錫)은 30세 때 소득세납부로 전국 60위에 올라 최연소 사장이 최고액 납부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은 애경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 제주항공을 지휘하며 제주의 하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제주땅에는 한겨울 속에서 수선화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다. 그윽한 향기가 퍼질 즈음

40) 정의현과 대정현을 제외한 산북 지역 행정구역

경제살리기

에는 수선화를 노래하는 시인도 생겨난다. 채구석은 수선화 같은 제주인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 등 세계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제주섬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굴곡의 역사 속에서 옹골차고 미래를 개척한 채구석의 기적을 추적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윤식, 續陰淸史

정재 고병오, 元大靜郡誌, 대정역사문화연구회, 2006

金宗業, 濟州島實記, 濟州島史論攷

Digital 한국학 <한국의 역대인물>

홍순만, 제주신문 1978년 10월 12일자 연재물 碑(28)과 19일자 碑(30)

현기영,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6

김찬흠, 근대 제주인물사